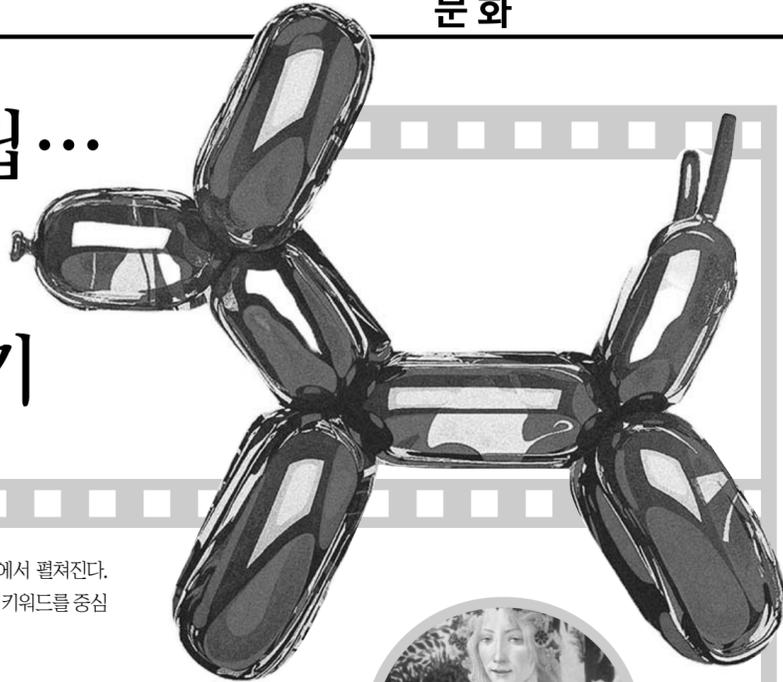


예술·고전·독립... 광주극장서 즐거운 여름나기



무더운 여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영화 한마당이 광주극장에서 펼쳐진다. 광주극장은 오는 26일부터 예술가·고전·한국독립영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보티첼리·제프 쿤스 등 예술가 실화 바탕 다큐멘터리부터 광주 독립영화계 진수 보여주는 조재형 감독 장편영화까지

먼저 보티첼리·제프 쿤스·자하야 지우아니 등 예술가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눈길을 끈다.

오는 26일 '보티첼리, 피렌체와 메디치'가 관객들의 꾸준한 재상영 요청에 힘입어 극장에 내걸린다. 르네상스 미술의 상징이자 천재화가 보티첼리의 예술 세계, 그를 후원한 메디치 가문 이야기를 흥미롭게 그린 다큐멘터리다. 영화에서는 보티첼리의 대표작 '볼굴의 용기', '성모자와 다섯 천사', '봄', '비너스의 탄생' 등을 다양한 시각으로 보여준다.

이어 다음달 1일부터는 '제프 쿤스 그 은밀한 초상'이 상영된다. 최근 30년 동안 가장 영향력 있고 대중적이며 논란의 대상이 된 작가 제프 쿤스의 삶과 브

랜드 뒤 존재하는 이면의 세계를 그린 다큐멘터리다. 제18회 로마 국제영화제에서 프리미어 상영돼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다음달 7일에는 프랑스에서 단 4%뿐인 여성 지휘자 가운데 '자하야 지우아니' 실화를 다룬 영화 '디베르티멘토'가 상영된다. 1995년 파리, 이민자가 정 출신의 17살 자하야 지우아니가 꿈을 향해 자신만의 오케스트라 '디베르티멘토'를 결성하면서 세상과 하나 되는 이야기를 담은 감동 실화다.

시간이 흘러도 빛을 발하는 고전 명작들도 관객들과 과만한다. 2014년 개봉해 10만 관객을 돌파하며 관객들의 큰 사랑을 받은 '미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이 10년 만에 재개봉한다.

광주극장에서도 개봉 10주년을 맞아 오는 27-29일 특별 상영회를 연다. 어릴 적 부모를 여리고 말을 잃은 채 살아가는 피아니스트 '폴'이 이 웃인 미담 프루스트 집을



대한 반열에 오른 아시로의 대표작 '동경이야기'까지 총 3편이다. 서포터즈·장애인·소년인 여공 등 다양한 소재의 한국 독립영화 4편도 관객들을 기다린다.

방문하면서 겪는 한편의 동화 같은 이야기다.

오는 28일에는 톰 크루즈 주연, 토니 스콧 감독의 '폭풍의 질주'가 상영된다. 과거 명성을 떨친 레이서 해리는 자동차 경주에 남다른 재능을 가진 톰 크루즈를 알아보고 그가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지도한다. 그러나 경쟁자 루디와의 경주에서 큰 사고를 당한 톰은 슬럼프에 빠지는 한편, 병원에서 만난 클레어와 사랑에 빠지게 된다.

31일에는 아버지를 도와 양봉을 치는 12살 소녀 '젤소미나'의 마법 같은 여름을 그린 영화 '더 원더스'가 개봉한다. 이탈리아 토스카나 양봉 농가 출신인 감독의 자전적인 요소가 진하게 녹아 있는 작품이다.

일본 영화사를 대표하는 감독 오즈 야스지로 기획전은 다음달 3일부터 25일까지 광주극장에서 열린다.

상영작은 부녀간 세밀한 감정을 특유의 정제되고 정갈한 미장센으로 표현한 '만춘', 소원해진 부부 관계를 일상 음식을 통해 풀어낸 '오차즈케의 맛', 뛰어난 작품성으로 영화역사상 위

대한 반열에 오른 아시로의 대표작 '동경이야기'까지 총 3편이다. 서포터즈·장애인·소년인 여공 등 다양한 소재의 한국 독립영화 4편도 관객들을 기다린다.

하반신 마비 여성 장애인 '미숙'의 삶과 사랑을 그린 로맨틱 코미디 영화 '똥 싸는 소리'는 다음달 1일부터 만나 볼 수 있다. 조재형 감독의 장편영화로, 갑작스레 장애인이 된 조 감독의 당당한 복귀를 위해 광주 영화 스테이지가 한마음으로 제작에 참여한 작품이다. (새광주영화영상인연대와 (새)실로암사람들이 공동제작했다.

다음달 7일에는 세네아스트 박석영 감독의 신작이자 다섯 번째 장편 '사인'이 스크린에 걸린다. 할머니를 떠나 보내고 혼자 된 열여섯 살 '예선' 앞에 엄마에게 버려진 여섯 살 '새별'이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같은 날 개봉하는 영화 '조선인 여공의 노래'는 일제강점기,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본 방직 공장에서 일했던 조선인 여공들의 삶과 노래를 담은 다큐멘터리다.

상영시간 및 자세한 내용은 광주극장 네이버카페를 확인하면 된다.

/최명진 기자

●26-28일 '제3회 애니메이션 모꼬지'

다시 돌아온 ACC 애니메이션 축제

고고다이노·티시테시·슈퍼윙스 등 국내외 인기 캐릭터 참여



국내의 인기 애니메이션을 한 자리에서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대축제가 열린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ACC 어린이문화원 일대에서 '제3회 ACCF 애니메이션 모꼬지' 찾아라 애니메이션 친구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애니메이션 모꼬지'는 애니메이션 창작자 생태계 구축 및 저변 확대를 목표로 한 행사다. 올해 행사에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비롯해 국내 관련 기관·기업·대학과 일본, 대만 등 해외 애니메이션 작품들이 참여한다.

먼저 어린이문화원 다목적홀에서는 국내외에서 우수한 품질과 스토리로 사랑받고 있는 애니메이션 콘텐츠 기업 9곳과 기술기업 4곳이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참여 캐릭터는 주라기갑스를 비롯해 ▲고고다이노 우리동네공룡 ▲상상꾸러기 꾸다 ▲두다다쿵 ▲레인보우버블젠 ▲타타와쿠마 ▲티시테시 ▲사샤&마일로 ▲우당탕탕 아이쿠 ▲우당탕탕 은하안전단 ▲사이닝스타 ▲출동! 슈퍼윙스 등이다.

행사는 애니메이션 상영회와 각종 체험 프로그램, 애니메이션 타운, 캐릭터 퍼레이드 등으로 구성된다. 애니메

이션 상영회에서는 참여 기업의 극장 상영작과 TV 인기 방영작 뿐만 아니라 평소 접하기 힘든 독립 애니메이션 우수 초청작 6편도 상영한다.

지역 기관·대학과 연계한 특별관도 마련된다. '미디어아트관'에서는 호남대 학생들의 미디어 콘텐츠 작품을 감상할 수 있고,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협력으로 운영되는 '실감콘텐츠관'에서는 최신 문화기술을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일본 TBS방송국 주최로 아시아의 우수 단편 영상을 시상하는 '디지털6 아시아 어워드' 수상 작품과 대만 타이베이미디어제작협회(TMPA) 작품들도 전시·상영된다.

아울러 27일 ACC 문화정보원 국제회의실에서는 (사)한국애니메이션학회, (사)한국캐릭터학회와 연계한 '애니메이션 미래비전 학술대회'가 개최된다. 애니메이션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애니메이션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할 계획이다. /최명진 기자

무형유산에게 배우는 전통문화예술강좌

광주문화재단, 내달 7일까지 수강생 모집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이 '2024 하반기 전통문화예술강좌'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광주 무형유산 기·예능보유자에게 기예를 전수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일반·청소년, 초급반·중급반 등 수강생 맞춤형 강좌로 구성됐다. 강좌는 오는 8월20일부터 11월30일까지 매주 1회씩 총 15주에 걸쳐 진행된다.

모집 부문은 ▲판소리(심청가·춘향가·흥보가) ▲판소리고법 ▲가야금병창(판소리·민요) ▲전통음식 ▲팽화 등 총 14개 강좌이며 각 강좌마다 15회

운영한다.

강사진은 ▲판소리 중급반 방성준(광주시 무형유산 판소리 춘향가 보유자), 이순자(남도판소리 춘향가 보유자), 김선이(남도판소리 흥보가 보유자) 등 ▲판소리고법 양신승(판소리고법 전승교육사) ▲청소년 가야금병창 문명자(가야금병창 보유자), 이영애(가야금병창 보유자) 등이다.

수강 신청은 다음달 7일까지로 강좌당 선착순 15명을 모집하며, 전통문화관 누리집 및 전화로 접수 가능하다.

/최명진 기자

CBS가 한국교회와 함께 기후·생명 회복을 위한 행동에 나섭니다



- 기후·생명 회복 위한 <환경주일 목회서신·공동기도문> 채택
- 창조질서 회복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캠페인 확산
- 기후난민공동체 지원 사업 전개
-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생태보존 교육 실시

CBS, (사)푸른아시아, 한국교회 15개 주요 교단, 환경부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공동협력 체계'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운동본부 출범 · 2022. 4. 26

